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방세 체납 안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시행

정읍시가 2월부터 지방세 체납 안내문과 고지서를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 증계자를 활용하여 암호화된 연계 정보(CI)로 납세자의 스마트폰에 안내문을 직접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납세자는 카카오톡으로 도착한 알림톡에서 간편 본인 인증을 거치면 지방세 부과 내역과 체납 상세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시지 창에서 전자납부 번호와 가상계좌까지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 은행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송달률을 높여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어린이집방역소독비 조리사대체인력지원 추진

고창군이 지역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은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18개소를 대상으로 실내·외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규모에 따라 연 40~6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860만원의 예산을 전액 군비로 편성했다.

'조리사 대체인력 운영 지원'도 시작된다. 어린이집 조리사 연가·병가 시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한 급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예산은 1100만원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대체인력 미사용 시 연가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적지'

부안군민 1천여명, 총궐기대회 열어... 부안 산단 유치 당위성 호소 '한목소리'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부안 유치를 촉구하는 부안군민 총궐기대회가 10일 오후 2시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군민과 사회단체, 청년·어민·농민·소상공인·학생 대표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정부와 전북도를 향해 부안의 당위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대회는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부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부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군민들의 집단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석기 공동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이태근 공동위원장은 취지 설명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리"라 하며, 부안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자리"라며 "명분과 원칙, 그리고 논리에 기반한 입지 선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공동위원장은 대표 인사말에서 "이 대회의 주인공은 정치권도, 특정 단체도 아닌 군민"이라며 "부안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군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핵심 발언 시간에는 각계 군민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RE100 국가산단 유치가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를 호소했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전승원 위원장은 "산업단지 유치는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의 핵심 열쇠"라며 "부안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년과 농민, 어민, 학생 대표들 또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부안 유치를 촉구하는 부안군민 총궐기대회가 10일 오후 2시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에서 열렸다.

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RE100 국가산단은 반드시 부안에 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영식·김택균·김종복·김석철·구낙서 공동대표단은 짙막한 인사말을 통해 "부안의 입지 조건과 산업 연계성, 재생에너지 기반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와 전북도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한수 자문위원은 정책 브리핑에서 "부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용지 확보 가능성, 물류 접근성 등에서 RE100 국가산단 최적지"라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도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김종대·이명숙 공동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참석자들은 "RE100 국가산단은 부안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전북도는 명분 없는 배제와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부안을 최우선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군민들은 마지막 문장을 함께 외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참가자 전원 'RE100 국가산단 부안으로!' 문구가 적힌 손팻대를 일제히 들어 올리고 "RE100 국가산단, 부안으로!", "부안을 빼고 미래는 없다!" 등의 구호를 세 차례 반복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범군민추진위원회는 향후 정부 건의문 제출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 대규모 단체 행동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총궐기 대회는 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알린 자리"라며 "부안 이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의 최적지임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고창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10일 고창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고창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의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비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민규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활기가 넘쳐야 할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넉넉하고 인심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의회, 제369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0일 제 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각종 조례안 등 민생 관련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금 및 산업의 전폭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혁신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북은 농촌

진흥청 등 R&D 기관이 밀집해 있고,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보유한 농업의 심장부"라며, 농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전폭 이전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했다.

이현기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새만금이야말로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강력 제안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국가 주요 정책에 지역의 여건과 강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군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목표액 훌쩍 넘어

8억1300만원 성금을 모금목표액 대비 135% 초과 달성

정읍시가 연말연시 진행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서 목표액을 훌쩍 넘기며 사랑의 온도탑 135도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총 8억 13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대비 135%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모금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시작

됐다. 하지만 시민과 기업,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자발적이고 따뜻한 기부행렬이 이어지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금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될 예정이다. 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긴급 지원, 사회복지 시설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쓰인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나눔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 모금 캠페인은 종료됐으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참여는 연중 가능하다. 나눔에 동참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관내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점검

생활·체육·복지시설 찾아... 실행 중심 현장행정 지속 강화

정읍시가 시민 일상과 직결된 생활 안전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위한 현장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9일 △신태인 파크골프장 △신태인 축구장 일원 △북부노인복지관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등 북부권역 주요 공공시설을 방문해 운영 실태와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실행 과

제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한 만큼, 미루지 않고 신속한 개선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별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